

중국, 정유·화학 건설 반대 잇달아

Kunming, 반대집회에 2000명 모여 … Chengdu 집회는 원천 차단

중국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오염시설 반대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서남부 윈난의 Kunming에서는 5월4일 오후 주민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유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고 타이완 연합보 등이 5월5일 보도했다.



주민들은 <Kunming은 정유공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NO 정유공장> 등이 적힌 마스크를 쓰거나 <역사에 불명예를 남길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라> 등의 글귀가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으며,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Kunming 전역이 직접적인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위 참가자는 “공장이 도심과 직선거리로 불과 30여km 떨어져 있고 바람길이 지나는 곳에 있는

점 등을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최근 수년 사이 가뭄이 심각한데 공장이 들어서면 물 부족현상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국영 PetroChina는 Kunming의 Anning에 석유정제 1000만톤 공장 및 P-X(Para-Xylene) 50만톤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1월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Sichuan의 Chengdu에서도 PetroChina가 건설한 Fengzhou 석유화학 플랜트 가동에 반대하는 주민집회가 예정됐으나 공안 당국이 사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등 외신은 중국 당국이 지진대비 훈련 명목으로 주요 집회 가능 장소에 수천명의 경찰력을 배치하고, 각급 학교에도 학생들을 정상 등교시키도록 요구해 집회 참가를 막았다고 보도했다.

주민들은 해당 석유화학 플랜트가 최근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한 Sichuan의 Lushan과 마찬가지로 단층대 인근에 있어 지진이 발생하면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06>